

지역 소식통

김제시,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분리배출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우유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수거 대상 품목은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친환경 상패이며, 친환경 상패의 경우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만든 단일제품만 해당되고, 2가지 이상 섞인 합성제품의 경우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대상 재활용품은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며 종이팩 200ml 20매, 500ml 15매, 1,000ml 10매 및 폐건전지 10개 당 롤 화장지 1개씩 교환이 가능하고 아이스팩과 친환경 상패는 각각 10개와 3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20L) 1장을 받게 된다.

수거 장소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이며, 재활용품을 모아 아올 때는 종이팩의 경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말려서 가져오면 되고,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세척 후 박스에 담아서 가져오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알레르기 질환 가족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자 및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임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전문 아토피 강사를 초청해 아토피 강의 및 천연재료로 썬스틱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질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아토피·천식 힐링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줄서는 식당 '줄슐랭' 발굴

외식업소 경영혁신 컨설팅

완주군이 줄서는 맛집 '줄슐랭'의 육성을 위해 외식업소 대상 맞춤형 경영혁신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외식업소의 경영부담 완화 및 '맛집 부자' 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소의 자가진단과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연계해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소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제식품과 식품마케

팅 담당자 이메일(annloyd011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방문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외식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완주의 '줄슐랭'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급리·고급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외식업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줄서 먹는 맛집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4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27개 팀과 완주농산물사용인증업소 49개팀, 안심식당 지정 업소를 우선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소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제식품과 식품마케팅 담당자 이메일(annloyd011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방문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외식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완주의 '줄슐랭'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급리·고급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외식업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줄서 먹는 맛집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관련 설명회

완주군, 50인 미만 사업체 대응 가이드라인 제공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설명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가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의 한 참가자는 "중대재

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주 내용이고 처벌수위도 높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정확히 법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행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방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경제의 기틀인 소규모 사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수해,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김재천 의원 대표발의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건의

완주군은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계적인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이혼, 유기, 사망,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세상의 일원이 돼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꽃다운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홀로 던져져 매일 새로운 자립을 견뎌내는 '열여덟 어른'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20대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



완주군의회는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는 2022년 광주에서 벌어진 2명의 자립준비청년 자살에 연이은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 살아남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방증하는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33.4%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약 1천만 원 내외의 자

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온전한 거주지를 구하고 직업을 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어린 나이의 부족한 경험으로 이마저도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시군공노조, 김제시의회 A의원의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성명서 발표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2일 김제시청 앞에서 스톱킹과 폭력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A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A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톱킹까지 저질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

성민)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사결과 A의원은 피해여성에게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8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을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성토했으며 "그간 대한민국 지방

의회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다. 대다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라며 지방의회, 공무원 및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수산공익직불금 사업 추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수산기분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지불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지불금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지불금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

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에 해당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불금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올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사업이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